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합 천 군 의 회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 추진방향

-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시설을 지역 내 새로이 확충함으로써 우리 군의 경쟁력 확보 및 정책제안에 활용

2 연구회 개요

1. 설립근거 :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단 체 명 :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
3. 참여의원 : 4명
 - 이종철(대표), 조삼술, 이한신, 김문숙
4. 활동기간 : 2023. 5. ~ 11.
 - ※ 용역기간 : 2023. 8. ~ 11.
5. 연구목적 및 내용 : 합천군의 주요 산업인 농촌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과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농업환경 개선·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제안 개발
6. 보고회 사진



4 연구결과 및 제언사항

1. 연구결과 분석

가. 강점요인

- 1) 경남 서북부 지역 위치로 대구, 창원, 진주 등 대도시 접근성 우수
- 2)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운석충돌지 등 지역 대표 관광명소 위치
- 3) 2022년 농촌진흥사업 중앙단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나. 약점요인

- 1) 2010년 이후 지역 내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가속
- 2) 관내 문화관광자원의 북부지역 편중현상 심각
- 3) 사업 대상지 여건 상 대규모 실내시설 조성 제약

다. 기회요인

- 1) 도심 근교 힐링관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제고
- 2) 전국적으로 농기계를 테마로 한 유사시설이 적고 수요 확보 용이
- 3)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지원증대

라. 위협요인

- 1) 농촌관광 관련 법령 및 보조사업 지원기반 미흡
- 2) 최근 5년 간 지역 내 농업인구 및 작물 생산량 감소 추세
- 3)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타격 심각 및 지속 가능성 저하

마. 비용 및 편익분석

1) 연간 운영비 : 431백만원

가) 정규인력(2명) 인건비는 2023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 기준, 운영 관리 보조인력(6명)은 기간제 근로자 임금적용

나) 운영관리비는 ‘창원농업테마파크’, ‘전남농업박물관 쌀테마공원’ 예산기준 연면적을 고려하여 단가환산

2) 연간 편익 : 1,274백만원

가) 프로그램 이용 수요는 중력모형 모델링 결과 2026년 기준 102,091명,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평균참여율 28% 적용

- 나) 프로그램 체험료, 글램핑장 숙박료 등은 타 지자체 유사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평균 단가 산정
- 다) 여가활동 개선 편익은 ‘2022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제시된 월 평균 희망 여가비용(239,000원/명)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적용

2. 연구결과 총평

- 가. 최근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콘텐츠 업체 등장과 지역다움이 MZ세대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으로 등장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색깔이 담긴 공간과 식품, 굿즈를 통한 로컬 힙(hip)이 하나의 트렌드로 부상
- 나. 일상에 스며든 관광시대 도래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장기간의 숙박여행이 아닌 짧은 여행기간, 횟수는 증가하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
- 다. 따라서 평범한 일상 생활공간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서 농기계 테마파크 공원은 국내에서 유사시설이 적고 희소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제언사항

- 가. 농기계 테마공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단순히 현대 농기계만이 아닌 우리의 전통농업에 사용된 모든 농기계를 전시하는 장소로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어린이들은 과거와 현대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나. 농기계 테마공원을 가족단위의 오락공간으로 조성하여 단순히 보는것만이 아닌 직접 작동하고 체험해보는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함

4. 언론보도

뉴스프리존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옥원 기자

[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의회가 22일 합천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합천군)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신경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성종태, 이태련,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 정봉운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합천군 재래시장 특화 모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는 이종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삼술, 이한신, 김문숙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지난 5월부터 합천군 농기계 테마공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각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현장답사를 통한 의견 수렴, 지역 내 관계자와의 면담, 우수사례 조사·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신경자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합천 시장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확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합천군 농촌관광 발전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합천군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농기계 테마공원 설립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연구의 필요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의원 모두가 연구단체에 소속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원 기자 an9332258@hanmail.net